

## 해외 언어·문화연수 후기

연수구분	2024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해외 언어·문화연수
연수기관	BSDC
연수기간	24.07.08~24.07.25
연수자	사회복지학과,최승호

### 연수후기

첫 날에 공항에 도착하여 해외연수를 신청한 다른학교의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다. 경운대학교에서 대략30명, 가천대에서 5명 그리고 한라대에서 1명 본인이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더비에 위치해있는 숙소로 도착을 하였다. 우리 건물에는 4개 정도의 각기다른 방이 있었고, 경운대 학생들이 13,14 FLAT 단체방을 사용하였고, 나는 12 FLAT을 개인방으로 사용하였다. 개인 주방을 포함한, 복층형의 방이 주어졌다. 넓은 소파, 큰 벽걸이형 TV 그리고 개인 화장실과 넓은 방을 사용하였다. 개인적으로 숙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주말이 지나고 학교로 처음 등교를 하였고, 버스카드를 제공하여 정해진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카드였다. X38번 버스를 이용하여 더비에서 버튼으로 한 번에 가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하였다.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학교를 다닐 시 주의할 점 및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푸는 것에 집중을 하여 진행되었다. 점점 친해지는 그룹이 생기고 나는 목적에 맞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버디들과 빠르게 친해졌다. Sam이라는 영국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덕분에 너무 행복한 영국 생활을 하고 왔다. 가끔은 다른 한국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스케이트 보드, 음악, 패션 등 취향이 잘 맞는 덕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등교, 점심식사 그리고 하교 후 저녁 스케줄까지 Sam과 항상 시간을 보냈다.

Sam 덕에 Charlie, Si, Jacob, Lezzie, Levi 등등 많은 외국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중간 중간 Lichfield, Birmingham, Nottingham, London, Buxton 등등 많은 지역을 경험하였고,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Birmingham과 Nottingham이 좋았던 것 같다.(모든 곳을 Sam과 같이 여행하였다.) 하루는 Sam의 아버지인 Darren과 어머니인 Debbie가 집으로 초대를 하여 같이 저녁식사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3주라는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수업을 항상 진행해 준 Catherine과의 정도 많이 들어서 수료날에는 Catherine이 우리의 그룹을 수업할 때 가장 뜻깊고 행복했다고 하며 눈물을 보였다.(그룹 학생 모두 참석률100%를 기록했고,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다.)

비록 혼자였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조금이나마 한라대학교

의 명성을 높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더욱 뜻깊은 해외연수였다. Catherine은 한라대학교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학생들을 보내는지 궁금해하며 방문하고 싶다는 뜻까지 전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 2주를 넘은 지금도 많은 버디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가천대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Sam과 친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전해들었다.

Catherine은 꼭 한국에 돌아가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교환학생, 어학연수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도 만약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꼭 한번 더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깊게 들었다.

Sam은 하반기에 경운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다고 하여서 만나서 제주도, 일본 등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준 한라대학교, BSDC에 계시는 Sam teacher, 사회복지학과 조수민 교수님 그리고 국제협력본부에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



### 연수사진

